

2016년 봄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생명 나무

메시지 6
욥과 두 나무들

성경: 욥 1:1, 2:3, 9, 27:5, 31:6, 42:1-6

- I. 성경 66 권은 오직 한가지를 위한 것이다.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도록 그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한 것이다—엡 3:16-17 상, 빌 1:21 상.
- A. 이것이 우리의 일생을 통제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—요 6:57.
 - B. 실지적인 방식으로 이것이 우리의 누림을 위한 오늘날의 생명나무이어야 한다—계 22:14.
- II. 하나님의 의도는 욥을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노선에 두는 것이었다.
- A.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리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에 따른 것이었다—욥 2:11—32:1.
 - B. 욥은 그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옳고 그름의 지식 안에 멈추어 있었다—욥 4:7-8.
 - C. 욥과 그의 친구들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영역 안에 있었다. 하나님은 그들을 그 영역으로부터 구해내어 생명나무의 영역 안에 두려고 하셨다—1:1; 2:3; 19:10.
 - D. 욥을 다루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하나님을 충만한 정도까지 얻도록 그를 선과 악의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다—욥 42:1-6.
- III. 욥은 자신의 온전함과 올바름과 정직함 안에서 자신을 표현한 선한 사람이었다—욥 27:5, 31:6, 32:1.
- A.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다. 정직함은 온전하고 옳은 것의 총체이다 —욥 2:3, 9, 27:5, 31:6.
 - 1. 욥을 볼 때 정직함은 그의 존재의 총체적인 표현이다.
 - 2. 성격에 있어서 욥은 온전하고 올바랐으며, 윤리에 있어서 그는 정직함의 높은 표준을 지녔다.
 - B. 욥은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부정적으로는 악으로부터 돌이켰다—욥 1:1.
 - 1.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다만 두려워하고 아무 그릇된 일도 행하지 않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. 그보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—창 1:26.
 - 2.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다.
 - C. 욥이 그의 온전함과 올바름과 정직함 안에서 도달한 것은 전적으로 헛된 것이었다.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도 성취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갈망도 만족시키지 못했다.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욥을 염려하셨다—욥 1:6-8, 2:1-3.

- D. 오직 하나님만이 욥에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셨다. 욥은 그의 안에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았다.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분을 얻기를 원하셨다—42:5-6.

IV. 하나님의 의도는 욥이 그분의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-사람이 되는 것이었다—욥 22:24-25, 38:1-3.

- A.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온전함과 올바름과 정직함 안에서 도달한 것들 대신 하나님을 얻도록 욥을 다른 영역, 즉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이끄셨다—욥 42:5-6.
- B.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를 태우고, 그가 온전하고 올바른 윤리의 높은 표준 안에서 도달하고 획득한 것들을 그에게서 벗기는 것이었다—욥 31:6.
- C.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이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들 안에서 새롭게 된 욥을 건축하기 위해, 자신의 온전함과 올바름 안에 있는 타고난 욥을 허무는 것이었다—욥 1:6-8, 2:3-6.
- D. 하나님의 의도는 욥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충만이 되도록 그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다—딤후 6:11, 딤후 3:17.
- E. 하나님의 벗기심과 태우심이 욥을 허물기 위해 욥에게 수행되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격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 같은 하나님-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으로 욥을 재건축 할 수 있는 길을 가지실 수 있었다—엡 3:16-21.

V.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욥은 하나님을 뵈었다. 그는 그때 개인적인 체험 안에서 하나님을 얻었고 자신을 미워하였다—욥 38:1-3, 42:1-6.

- A.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셨을 때 그분의 의도는 욥 안으로 그분 자신을 넣을 시간을 갖기 위하여 그의 존재는 지키지만 그를 감소시켜 그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게 하는 것이었다 (욥 2:6). 하나님은 오직 한가지 일, 즉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넣으시는 일만을 주의하신다.
- B. 그분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얻고, 그분께 참여하고, 그분을 소유하며,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하여 그분을 누리는 것이 가장 충만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른 모든 것보다 그분을 더욱 더 누리는 것이다—빌 3:8-9, 계 21:2.
- C.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얻는 것과 같다. 그리고 하나님을 얻는 것은 그분의 요소와 생명과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—고후 3:16, 18.

VI.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생명나무로서 심으셨다—요 1:12-13, 3:3, 5-6, 15, 11:25, 15:1, 5.

- A. 욥은 윤리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추구했다.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이들인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—고전 15:28, 엡 3:16-21.
- B.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 우리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영역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. 우리는 생명나무의 영역, 즉 생명 주시는 영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—고전 15:45 하, 롬 8:2, 4.

선한 사람을 하나님-사람으로 변화시킵
옴을 벗기시고 태우시고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목적

- I. “나의 영광을 거두어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”—옴 19:9-10.
- II. “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”—옴 42:5-6.
- III. 옴이 그의 온전함과 올바름과 정의 안에서 도달한 것은 완전히 헛되었다.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도 성취하지 못했고, 하나님의 갈망도 만족시키지 못했다—옴 1:6-8, 2:1-3, 27:5, 31:6, 32:1.
- IV. 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를 태우시고 그가 온전하고 올바른 윤리의 높은 표준 안에서 도달하고 획득한 것들을 그에게서 벗기는 것이었다—옴 19:9-10.
 - A.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이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들 안에서 새롭게 된 옴을 건축하시기 위해, 자신의 온전함과 올바름 안에 있는 타고난 옴을 허무시는 것이었다—옴 1:6-8; 2:3-6.
 - B. 하나님의 벗기심과 태우심이 옴을 허물기 위해 옴에게 수행되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옴을 하나님 자신으로 재건축 할 수 있는 길을 가지실 수 있었고, 옴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격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 같은 하나님-사람이 될 수 있었다—엡 3:16-21.
 - C.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를 얻었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벗김과 태움을 받았는가에 달려있다—고후 4:16.
 - D.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분배하시는 것은 그분의 벗기심과 태우심을 통해서이다—옴 1:8-9, 13:14.
 - E.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실의 방법을 통해서까지 다루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의 성취를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얻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표현되시기 위해서이다—창 1:26.
- V.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벗겨지고 태워진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뵈 것이다—옴 42:5, 고후 3:18, 히 12:14, 계 22:4.
 - A. 우리는 하나님을 뵈고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.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신격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나누지 않는다—요 1:12-13, 뵈후 1:4.
 - B. 우리가 하나님을 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받고 그분의 본성과 생명과 요소와 본질과 존재를 갖는다—마 5:8.
 - C. 하나님을 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 안으로 변화되는 것이다.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할 뿐 아니라,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 안에서 그분을 대표하도록 하나님의 일부가 되게 한다—고후 3:18.
 - D. 마침내 옴은 하나님을 뵈었다. 그러나 옴이 본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, 즉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의 단계들을 통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‘날’ 하나님이셨다—옴 42:5.

- E. 옴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‘요리되신’ 하나님, 즉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고 숨쉴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—요 6:57, 4:14, 20:22.
- F. 우리의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시다. 그분은 완결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—요 7:39, 고전 15:45 하.
- G.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본질과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신다.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표현을 위하여 그분으로 조성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—고전 6:17; 12:12.
- H.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볼 필요가 있다.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, 즉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분과 생명과 본성에서 똑같이 되도록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, 즉 그 영에 의하여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로서 그분 자신을 그들 안으로 분배하시려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의도이다—엡 4:4-6, 16, 계 21:2, 10-11.